

## 온라인? 비마인! (Online? Be mine!)

경영학부 19학번 배○○

### ○ 에세이 작성 동기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다. 또한 경영학부 과목만 들었던 1학년 때와 달리 복수전공으로 물류학부 과목까지 함께 수강하게 된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느꼈었다. 개인적으로 과목별로 모두 공부법이 달라야 하고 그 공부법에 따라 강의를 듣고 시험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선배들에게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 어려웠다. 그렇기에 나처럼 갑자기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어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에게 몇몇 과목들의 수업 방식, 시험 방식과 공부 방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다.

###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실제 학습효과, 학습방법 차별성)

경영학부 과목인 '마케팅관리'와 물류학부 과목인 '통계학개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1'에 대한 학습 노하우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우선 '마케팅 관리' 과목이다. 이 강의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시험 문제가 서술형이라 이 부분들을 꼼꼼히 필기하면서 들어야 한다. 과제는 그 날 배운 수업 내용 중에서, 충분히 교재에서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어진다. 이 과목은 단기간에 시험공부를 해도 충분한 과목이라 시험공부의 기간은 이틀 정도면 충분하다. 준비물은 족보와 교재이다. 첫 날 할 일은 예상 문제와 답안 만들기 및 2/3 분량 정도 외우기이다. 우선 족보에 있는 시험 문제들을 작성하고 교재에서 답안을 찾아 작성한 후 교재에 적힌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의 질문과 답을 작성한다. 족보와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나 족보에 여러 번 출제된 문제들은 따로 적어 놓고 상세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모두 프린트한다. 나의 경우에는 A4용지 한 페이지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답안을 작성했고, 총 분량은 20장보다 살짝 적었다. 그리고 나면 중요하다고 표시한 것부터 차례로 외우고 눈, 손, 입, 귀를 모두 활용하며 백지복습을 한다. 자세한 방법은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고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다. 또한 한 문제 답안을 조금씩 나눠서 외우고, 한 문제를 다 외운 것 같다 싶으면 책을 가리고 백지에 내용을 적어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한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

문제 답을 다 외우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 번 다 외운다. 그리고 나면 하루가 남는데 이 하루 동안에는 나머지 1/3의 분량의 답안을 외우고, 처음부터 다시 문제만 보면서 답안을 작성해본다. 두 번째로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 이해력이 높아져 불필요한 문장이나 단어들을 빼고 매끄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번째에 외울 때 걸리는 시간의 거의 절반밖에 안 걸린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용어들만 적어가면서 말로 빠르게 답안을 말해보는 것이다. 완벽하게 외웠다면 이 과정은 1시간~2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말로 답안을 다 말할 수 있다면 잘 외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틀을 공부한다면 이 시험은 성공적일 것이다.

두 번째는 ‘통계학개론’ 과목이다. 이 과목은 내가 대학교에 와서 들은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 과목은 문제만 풀 줄 알면 되는 다른 통계 과목들과 달리 모든 식을 도출하는 증명 과정을 배우고 이 과정에서 자연 상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과정까지도 다뤘기 때문이다. 문과였던 나는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 방식밖에 몰랐고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법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그 날 강의노트를 모두 뽑아 놓고 강의를 여러 번 멈추면서 거의 모든 풀이의 필기를 해 놓았고 이후에 이것들을 종이를 넘길 수 있는 파일철에 꽂아 놓았다. 이 과목은 매주 출석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몇 주 단위로 다섯 문제정도의 문제풀이 과제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히 까다롭다. 문제풀이 과제를 할 때 나는 보통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과 반대로 문제를 먼저 보고 공부를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와 관련된 수업시간에 필기해둔 내용과 강의노트를 토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연습문제를 풀었고 그 후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며 강의 노트의 단원, 페이지 그리고 문제 번호까지 모두 기록해 놓고 이후 문제를 다 푼 후 검토를 할 때 활용했다. 문제를 풀면서 너무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대학교 앱에서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와 친구들에게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은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시험도 당연히 고민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식을 도출하는 ‘증명’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9개 정도의 계산 문제와 o,x문제가 나왔다. 따라서 ‘증명’ 필기를 다 해가며 이해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문제 풀이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 과목을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평소 문제풀이 과제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풀어서 내고 시험 문제도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빈 종이를 내지 않고 아는 만큼 적으면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편인 것 같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중요한 점은 너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혼자 수강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친구들과 함께 수강하여 스터디를 하며 공부하면 공부 효율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컴퓨터 프로그래밍1’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엑셀과 매트랩을 배운다. 경영학부 학생이라면 1학년 때 ‘컴퓨팅적사고와 문제해결’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여 아마 엑셀 부분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목은 따로 교재는 없고 교수님이 파워포인트나 유튜브 참고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날 그 날 강의를 들은 내용들을 공책에 필기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건 실기이므로 강의를 들을 때 컴퓨터 두 대를 이용했다. 한 대로는 강의를 틀고 다른 한 대로는 직접 따라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 내용들은 모두 저장을 해 놓았다. 강의를 끝나고 나면 필기한 내용을 보고 직접 다시 해보았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수업 내용을 따라하면서 저장을 해 놓은 파일을 참고하여 공책에 덧붙여 필기를 했다. 사실 컴퓨터를 이용한 과목이라 다른 과목에 비해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나는 교수님과 skype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내 컴퓨터 화면 공유를 하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안 되는 지 교수님 앞에서 직접 해보면서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도 해결책을 주셨다. 아마 이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시도해보진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도 나에게 다른 학생들에게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skype로 연락하라고 말해달라고 하셨고 나도 개인적으로 메일로 동영상 을 찍고 글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 같았다. 이 과목은 시험 문제가 오픈북으로 나오지만 따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문제 풀이하는 것들을 필기를 잘 해놓고 그 필기만 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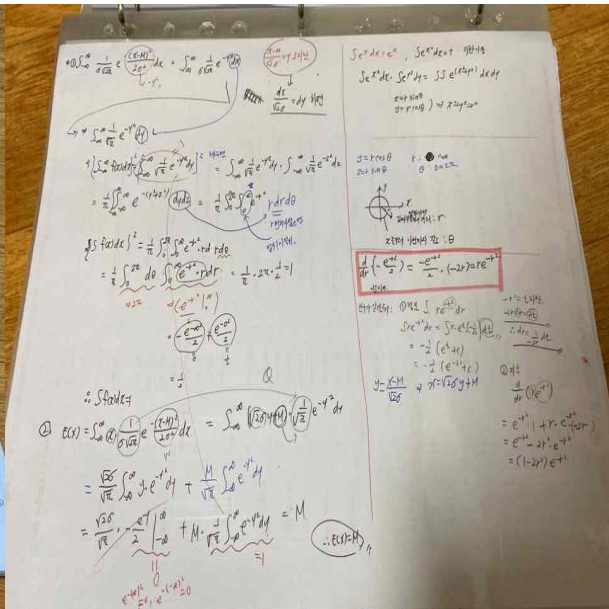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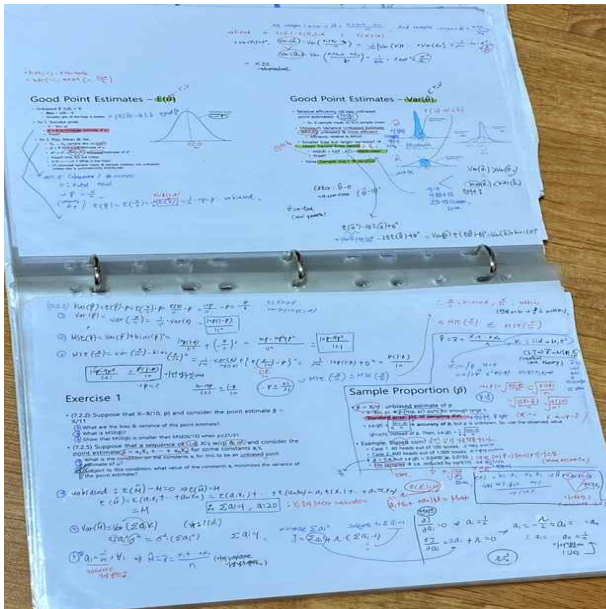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암기 방식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사용했던 방식이다. 단어를 외울 때에도 단어를 한 번에 끝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씩 한 페이지를 외우고 나면 다시 그 한 페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물론 긴 답안을 외울 때와 달리 단어는 누적으로, 2번째 페이지를 다 외웠을 경우 1,2페이지를 함께 확인한다. 이 방식과 백지 복습은 기억에는 오래 남지만 1회독을 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린다. 그렇지만 한 번 제대로 외우고 나면 2번, 3번 다시 볼 때에는 너무나 수월하게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등학교 때에도 세계사나 한국사 같은 암기과목을 공부 할 때 덕을 많이 봤던 방법이다. 논술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대학교 때에는 더욱 이 방법이 빛을 발했던 것 같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더라도 질문이 생기면 꼭 하려고 방법을 찾는 편인데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과목들은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목처럼 이론보다 실기가 중요한 과목은 반드시 직접 해볼 것을 권한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에는 이해가 가니까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업시간에 직접 따라해 보는 것과 방법을 적어놓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걸 보고 따라해 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 현재에도 나는 '경영과학'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엑셀을 사용해 해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수업 때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 중간고사도 쉽게 대비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었다.

###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내가 이 학습법을 통해 달라진 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논술형이 많이 나오는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답안들을 모두 외우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또한 내가 외우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1회독을 할 때에는 잘 안 외워져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여러 방식

으로 공부해본 결과 어찌됐든 한 번 제대로 외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다. 따라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한 번에 이해를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막혀 넘어가지 못할 때에도 ‘처음은 원래 어렵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할 때에도 말이다. 처음부터 누구나 잘하는 것은 없고 대충, 쉽게 얻은 것은 어차피 금방 사라진다고 생각하게 되니 그렇게 얻고 싶지 않았고,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다. 이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19에 익숙해진 현재의 생활이 신기하기도,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내가 당시 부담감을 많이 느꼈지만 어느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한 학기 수업을 듣고 공부해왔으며 알맞은 공부법을 찾으려했고, 어떻게든 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뿌듯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느꼈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작성했던 이 에세이가 내 한 학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내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통계학개론> 이용한 파일철과 수업시간 필기



# <컴퓨터 프로그래밍1> 필기 노트

